

	<h1>보 도 자 료</h1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<h2>12.15(화) 15:00부터 보도 가능</h2>	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, 코스콤, 금융결제원				
책 임 자	김동환 과장(02-2156-9490)	담 당 자	서병윤 사무관(02-2156-9494)		
	강태홍 상무(02-767-8008)		황극인 부장(02-767-7901)		
	김종찬 실장(02-531-3201)		장인수 팀장(02-531-3250)		
배 포 일	'15.12.15(화)	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3매

제 목 : 핀테크 서비스 개발, 쉽고 빨라진다. - 핀테크 테스트베드(Test-bed) 개소식 -

□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 연동되어 작동하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'핀테크 테스트베드(Test-bed)'가 여의도(코스콤, 금투업권)와 분당(금융결제원, 은행권)에 구축되어 금일(12.15) 개소

○ 핀테크 테스트베드 구축은 지난 7.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「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* 구축방안」에 따른 조치로서,

※ [참 고] 핀테크 오픈 플랫폼 :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**통로·장(場)**으로서

① 금융회사 내부의 서비스를 **표준화된 API*** 형태로 제공하는 **Open API**와

* **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** : 특정 기능(예, 계좌조회)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, 이를 개발자에 제공시 앱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

②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**Test-bed**를 더한 개념

○ 테스트베드를 통한 **시뮬레이션 환경**이 구축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짐

□ 이날 코스콤에서 열린 '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베드(Test-bed) 개소식'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, 정연대 코스콤 사장, 김종화 금융결제위원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, 핀테크 기업, 금융회사,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

□ '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베드(Test-bed)*'에는 코스콤 담당 직원들이 상주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 검증을 도울 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의 회의 장소 및 입주 공간까지 제공

* ① **Incubating Room** : 스타트업 입주 (업무공간)

② **Developer Zone** : 핀테크 비즈니스모델 검증, Open API 활용한 테스트 수행

③ **Seminar Room** : 회의 및 세미나 등 핀테크기업 활용 공간

□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“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”라고 강조하며,

○ “자본시장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의 바람이 더욱 가속화”되고,

○ “핀테크 테스트베드와 오픈플랫폼이 금융산업의 생기와 활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”한다고 언급

□ 코스콤과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16개 시중은행 및 18개 주요 증권사,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진행 중인 '금융권 공동 Open API 시스템 구축'이 내년 6월경 완료되고 나면

○ 핀테크 기업들이 송금, 계좌조회, 시세조회 등 각각의 기능별로 **표준화된 API**를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,

○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시스템 연동작업을 거치지 않아도, Open API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 금융회사 전체와 연동이 가능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

□ 이날 행사에서는 **Open API**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 시연도 있었음

- 현재 다수 증권사와 협약을 맺고 **주식종목 추천 서비스**를 제공 중인 핀테크 기업 **뉴지스탁**이 **가상데이터와 API***를 활용하여 **주식추천 서비스를** 제공하는 과정을 시연

* **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**란 **송금, 시세조회** 등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**프로그램 명령어 세트**로서, 금융회사가 사전에 제공하는 **API**를 활용하면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가능

□ **뉴지스탁 문경록 대표**는 시연과정에서

- “최초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아이디어를 설명하여 계약을 맺고 증권사 시스템과 연동되는 **서비스를 개발하기까지만 각각 3개월 이상씩 소요**”되었다면서 개발 초기의 어려움을 회상하며,
- “금번 시연을 위해 코스콤이 제공한 **API**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**소요된 시간은 단 2주에 불과**”하였다고 언급

□ 코스콤은 이날 **13개 스타트업과 MOU**를 맺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**스타트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도움**을 줄 수 있는 **핀테크 오픈 플랫폼**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힘

□ **코스콤과 금융결제원**은 금일부터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된 **테스트 베드 웹페이지도 오픈***하여, 사전 신청 후 테스트베드 센터를 방문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**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검증** 등을 제공할 예정임. 끝.

※ 핀테크 지원센터(<http://www.fintechcenter.or.kr>, 031-8016-1169)

코스콤(<http://fintech.koscom.co.kr>, 02-767-7831)

금융결제원(<http://testbed.kftc.or.kr>, 02-531-3250)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